

언론의 세월호 참사보도 구성*

- 프레임, 정보원, 재난보도준칙 분석을 중심으로 -

The Construction of Media Coverage on the Sewol Ferry Disaster

- The Analysis of Frames, News sources, and Disaster Reporting Guidelines -

Yung Wook Kim**, Hyun Nie Ahn***, Seung Kyung Ham****

** **** School of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how frames were constructed in new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associations between news frames and other variables such as political orientation of newspapers, news sources, news fairness, and disaster reporting guidelines. The main frames used in new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human interest, conflict, and countermeasures frames. Different frames were us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newspaper organizations.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moral, human interest and community's atonement frames were used more often in progressive newspapers significantly than in conservative newspapers, but the conflict, economic loss, and solution frames were more often used in conservative papers than in progressive newspapers. News sources used in the disaster news differed by frames. The government was used as a news source primarily in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frame and the National Assembly was used most in the conflict frame. An analysis on the news fairness index that consists of diversity of news sources and

* 이 연구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382 36)

** Corresponding author. Tel. +82-2-3277-2237. E-mail. kimyw@ewha.ac.kr

*** Tel. +82-2-3277-2643. E-mail, ahn12@ewha.ac.kr

**** Tel, +82-2-3277-2237. E-mail. hamseungkyung@gmail.com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May. 15, 2015 / Revised: Jun, 29, 2015 / Accepted: Jul. 11, 2015

balancing viewpoints shows that the fairness level of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frame was similar to the fairness level of the human interest frame. Among the disaster reporting guidelines, emotional expressions were more often violated in progressive papers than in conservative newspapers. Furthermore, emotional expressions were more often violated in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frame than in other frames.

Key words: Sewol ferry, frame, news sources, fairness

국문초록

세월호 참사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고 프레임과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 정보원 이용, 기사의 공정성, 보도준칙과의 관련성을 검증했다. 세월호 참사보도에서 원인책임규명, 인간적 관심, 갈등, 사후대책 프레임이 주요 프레임으로 분석되었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는데, 보수 언론은 진보 언론에 비해 참사를 둘러싼 갈등, 경제적 손실, 침몰 사건의 종결과 대책 프레임의 보도가 많았고, 진보언론은 보수 언론과 비교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도덕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인간적 관심을 넘어 공동체의 성찰문제로 프레임하는 보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레임에 따라 정보원의 활용도 차이가 유의미했다. 원인책임규명 프레임에서는 정부기관, 갈등 프레임에서는 국회, 인간적 프레임은 유가족, 공동체 속죄 프레임은 시민단체가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정보원 다양성이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정보원 다양성과 관점 균형 요인을 지수화해서 분석한 결과에도 원인책임규명 프레임의 공정성 수준이 인간적 관심 프레임과 유사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재난보도 준칙 중 언론사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감정적 표현 조항으로 분석되었고 진보언론이 보수언론보다 감정적 표현 위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용 프레임에 따른 보도준칙 위반에서 감정적 표현 위반이 원인책임규명 프레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주제어: 세월호, 프레임, 정보원, 공정성

1. 서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침몰한 세월호 승객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과 신문에서 이어지는 속보를 접한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전원구조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진도군청의 아무개 과장이 인명구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보고한 것을 해경, 전남도청,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를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언론 브리핑한 내용이었다(프레시안, 2014. 12. 19). 정부의 잘못된 브리핑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오보는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전국 MBC 기자협회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자 숫자가 중복 집계됐을 것이라고 판단해 전국부에 알렸지만, MBC는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고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썼다고 고백했다(전국 MBC 기자회견, 2014. 5. 13).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오보라고 자성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언론 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5월 초 KBS 김시곤 보도국장이 교통사고 발언과 관련해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사퇴하

면서 보도 독립성 훼손의 주범으로 김환영 사장을 지목하면서, 보도국장의 사임에 이어 공영방송 사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국언론연구원(1996)에 따르면 사건보도의 경우 뉴스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이분적 구도에서 보도가 이루어지는 반면, 재난보도는 정보의 제공자이면서 구조, 보상 등의 정보 요구자인 피해자까지 삼분 구도가 조성되면서 전문성, 정확성, 계몽성, 예방성 등 대안적 보도가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 재난보도가 흥미와 인간적 관심 위주의 선정적 보도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유승관·강경수 2011). 세월호 참사보도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구조된 학생에게 다른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아느냐고 질문한 공감과 배려가 부족한 인터뷰(jtbc, 2014. 4. 18), 가짜 민간잠수부 인터뷰(MBN, 2014. 4. 18), 선내 영겨있는 시신 다수 확인 보도(KBS, 2014. 4. 18) 등 미확인된 선정적 보도 행태를 보이면서 발표 저널리즘과 선정주의적 개인화 패러다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윤태진, 2014).

세월호 보도는 오보와 선정주의에 그치지 않고,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 논란을 통해 공정성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세월호 침몰 다음날 진도 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수를 치는 모습은 방송됐지만, 실종자 가족의 조소 섞인 반응은 편집되는 등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한 뉴스가 KBS에서 보도됐다. KBS기자들은 자사의 이런 편파보도에 대해 자신들은 세월호 현장에서 “기레기 중에 기레기”였다고 자괴감을 드러냈다(경향신문, 2014. 5. 7). Westerstahl(1983)은 보도의 객관성이 사실성과 공정성을 통해 구현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민간 연구 단체인 PEJ(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는 보도 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기사에 4명 이상의 정보원, 복합관점, 4개 이상의 이해당사자가 등장해야 한다고 객관적 기준을 제안했다(박재영, 2006). 세월호 재난보도는 이와 같은 저널리즘 관점에서 공정성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 대가로 여론으로부터 제기되는 기레기 비난을 감수해야 했으며, 기자들도 자괴감으로 구조적 한계를 실감해야 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뉴스는 사실의 집합이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고 구성된 현실이다(Tuchman, 1978). 뉴스는 사회적 규범, 경쟁, 조직의 제약, 시간 압박, 프레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보원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생산된다(Schudson, 2003). 그러나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모든 집단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권력과 이익집단은 미디어가 의견과 현실을 구성하는 프레임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Edelman, 1993). 미디어 프레임은 외적 요인 뿐 아니라 미디어 내부의 이념적 성향에도 영향 받아 자사의 이념적 성향이 내재된 텍스트를 생산한다(Scheufele, 1999). 따라서 세월호 참사보도는 열거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통해 ‘프레임(frame)’으로 존재하게 된다.

Goffman(1974)은 프레임을 사건과 사건에 대해 주관적 관여를 지배하는 조직의 원리라고 정의했다. 프레임을 통한 주관적 관여는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통해 인식할 수 없었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인식하게 만든다. 미디어 프레임은 단순한 사건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과 쟁점을 특정 맥락 속에 배치해서 수용자들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촉진시킨다(이강수, 2011). 따라서 세월

호 참사 보도 프레임 분석은 언론의 세월호 참사 규정, 원인과 책임에 대한 설명, 도덕적 평가, 대응책 제시 등을 파악해, 주관적 관여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작용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 여론이 제기했던 것은 언론의 공정성, 선정성 등 보도의 가시적인 요인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비가시적인 틀을 분석하는 프레임 연구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 사회문화적 특징, 이익집단 영향력 등 지배원리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Gamson & Modigliani, 1989). 이 연구는 기존 프레임 연구를 기본으로 언론의 공정성을 구성하는 정보원 다양성과 재난보도의 규범적 측면으로서 재난보도준칙 준수와 프레임과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보도 프레임

뉴스를 구성된 현실로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 패러다임에서 기인한다(Tuchman, 1978). 이러한 관점은 저널리스트들을 능동적 행위자로 규정하고 현실 세계와 교류하고 타협해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뉴스 보도는 저널리스트 상호간, 취재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략적 관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 현상이 구성되고 조직된다. 이렇게 뉴스보도는 사회를 반영하기보다는 사회를 공유된 현상으로 구성해내며 프레임(frame)으로 존재한다. 프레임은 문제를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Entman, 1993), 수용자들이 대상에 대해 주목하고 평가하고 행위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사건과 쟁점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McCulagh, 2002).

사회적 이슈를 해석함에 있어서 프레임은 주체 사이의 관계, 행위 중심의 상황, 이데올로기 등에 따라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이동훈·김원용, 2012).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은 다양한 주제에 적용되는 보편적 프레임과 특정 사건의 이슈 중심 프레임으로 구분된다(de Vreese, 2005). 보편적 프레임은 Iyengar(1991)가 책임귀인 측면에서 구분한 주제적, 일화적 프레임과 Semetko & Valekenburg(2000)가 귀납적 방법으로 추출한 인간적 관심, 도덕성, 갈등, 경제, 책임귀인 프레임이 해당된다. 반면 이슈 중심 프레임은 특정한 이슈에 대한 논쟁에 내재한 해석적 틀로서, Entman(1993)이 제시한 문제정의, 인과관계 해석, 평가, 대응책 등을 조합해 다양한 이슈에 적용되어 사용된다(Matthes, 2009).

보도 프레임은 저널리스트 개인 프레임, 뉴스 생산조직과 저널리스트 출입처 등 조직 프레임, 그리고 국가 혹은 국제 사회의 문화 공동체 프레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Brüggemann, 2014).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다룰 때 언론사의 정치적 이념이 반영되며 프레임 편향성을 보인다(송인덕,

2014). 프레임 편향성은 국내 다수 연구들에서 지적되었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경희·노기영, 2011; 이건호·고홍석, 2009; 김정아·채백, 2008; 최현주, 2010). 김경희·노기영(2011)은 신문이 북한을 어떻게 재현했는지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간의 이념차이가 존재하며 이념에 맞는 기사의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취재원 활용에서도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과는 이건호·고홍석(2008)의 연구에서도 파악되었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관련한 보도에서 보수와 진보 신문사들은 자신들의 보도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신뢰도의 취재원을 선별적으로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언론사들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보도 시각의 편향에 대해 김정아·채백(2008)은 언론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정치현실을 상이하게 구성해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했다.

프레임의 반복적 사용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수용자들의 인식에 영향력을 주어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의견을 형성한다(McLeod & Detenber, 1999). 프레임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실제 사례에서도 검증된다. 사회문제에 대해 일화 중심적 프레임을 접한 뉴스 이용자는 사회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개인의 특성과 자질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며(Iyengar, 1991), 선거 운동에서 전략 프레임과 이슈 프레임이 이용자들의 뉴스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Rhee, 1997), 프레임 효과는 논쟁적 이슈에서 개인의 인식 수준을 넘어서 여론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준웅, 1997). 프레임 효과가 확인될수록 뉴스 보도의 타당성, 공정성, 진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적 연구와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이준웅, 2009). 프레임 분석은 사회적 논쟁이 되는 쟁점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의 표면적 평가가 아니라 본질적 평가를 의미하며, 대립과 갈등 논의의 상충되는 가치, 이야기 구조의 모순, 강조점이 다른 텍스트 구성 등 구성적인 관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고영신, 2007).

2. 재난보도의 정보원 활용과 공정성 확보

재난은 사회의 일상적 기능이 물리적 손해와 손실을 입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은 사회적 구조와 사회의 변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Kreps, 1989). 현대사회에서의 재난은 지배계급이나 피지배 계급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며 일상적으로 존재하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재난의 책임 규명이 어렵다(Beck, 1986; 1997). 따라서 재난이 정부, 사회단체, 정당 등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재난 보도는 이런 사회적 기구들 사이에 개입되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Sandman, 1988), 재난 관리 주체인 정부, 일반 공중, 산업조직의 역할을 규명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한국언론연구원, 1996).

재난보도는 재난 초기에 공중들의 상황 파악을 돕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해야한다(Norris, *et al.*, 2008). 재난 상황에서 재난보도가 담당하는 여러 역할들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중들의 미디어 의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Ball-Rokeach & DeFleur, 1976). 재난 상황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큰 시기에 공중들은 미디어에 의존하는데, 9·11 테

러(Rogers, 2003),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Hirschburg, *et al.*, 1986) 등 재난에서 재난 상황을 공중에
게 인지시킨 주 정보원은 뉴스 미디어였다. 뉴스 미디어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복기에 공중
들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Beaudoin, 2007) 등 그 영향력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의 재난보도는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
건 중심의 대중적 접근으로 재난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압력에 대한 논쟁
을 유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Durfree, 2006), 예방적 이슈를 형성하지 못하고, 잠재적 재난에 대한 체
계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Wikins & Patterson, 1987). 국내 재난보도에서도 선정주
의적 보도태도, 재난의 원인보다 개인에 집중하는 보도태도, 정확성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언론연구원, 1996). 취재 방식에 있어서도 현장 상황의 중계보도 또는 피해 현장 위주의 스트레
이트 보도가 이루어지며(이경미·최낙진, 2008), 재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보
다는 구조지원 상황과 피해 관련자 상황 보도 등 수사적 접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자극적이고 극
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강진숙, 1996).

재난보도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다양한 일차적 정보원들이 제공하는 사실적인 것에 대한 설명
적이고 평가적인 메시지이다(Michael, 1990). 재난보도의 내용은 객관적인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
라 재난에 대한 사회적인 쟁점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쟁점을 보도하기 위한 정보원 역할이 중
요하다(이동근, 2004). 언론은 공식적 정보원에 의존한다(Fishman, 1980; Sigal, 1987). 언론이 공적 취
재원에 편향되는 원인은 보도 내용에 권위를 부여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뉴스 생산의 효율성을 증
가시키기 때문이다(McLeod & Hertog, 1998).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용의 사실 확인이 중
요한데, 공적 정보원의 경우 사실 확인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대변인, 보도 자료 등을 통해 기사 생
산 효율성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공적 정보원에 대한 의존은 정부와 엘리트 권력 의도가 기사에 반영
된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Shoemaker & Reese, 1996).

사회적 논쟁을 수반하는 위험과 재난 보도에서 언론의 정보원 이용은 권력 편향을 보인다(송해룡·
이윤경, 2013; 양정혜, 2008; 이민규·이예리, 2012; 한동섭·유승현, 2008; Coleman, 1995; Smith,
1993). 핵무기 동결 운동에 대한 보도를 분석한 Entman & Rojecki(2010)는 기사의 2/3가 비공식적 정
보원의 문제제기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보도에서 인용되는 것은 공식 정보원으로 비공식 정보원의 인
용은 12%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개발과 보존 이슈 갈등이 벌어졌던 구리 광산의 신문 보도를 연구
한 콜맨(Coleman, 1995)은 언론이 정부, 과학, 산업계의 견해가 반영된 프레임을 형성해, 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측을 타자로 특징지우며, 개발 논리를 확인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원유 유출 재난을
분석한 몰로치(Molotch, 1970)는 재난을 정의하려는 의도를 가진 당사자들이 미디어에 접근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고 분석했고, 뉴스는 저널리스트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정보원들에 의해 정의된다고 주
장했다(Molotch & Lester, 1975). 국내 구제역 보도(이민규·이예리, 201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언론
보도(한동섭·유승현,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양정혜, 2008), 구미불산 사고 누출(송
해룡·이윤경, 2013) 연구에서도 주 정보원으로 정부와 엘리트 집단을 활용해, 정부가 뉴스 내용에 영

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면서 다양한 사회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송해룡·이윤경, 2013).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는데, 그 중에서 뉴스 이용자 측면에서 공정성을 평가하려는 시도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주체가 바로 뉴스 이용자라는 것에서 출발한다(이종혁, 2015). 목은영·이준웅(2014)은 정보원 이용을 중심으로 뉴스 이용자의 공정성 인식을 측정했다. 공정성의 하위 차원으로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견해 반영, 관점 균형성 등으로 파악했는데, 이것은 미국 '우수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PEJ: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의 보도 심층성을 평가하는 보도지수(Reporting Index) 요인들을 반영한 것이다. PEJ에서 제시한 정보원 다양성, 이해당사자, 관점 균형 등 보도지수를 구성하는 세 개의 요인은 개별적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보도에서 정보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이건호·정완규, 2008). 보도의 공정성 확보에서 정보원의 중요성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세월호 침몰 직후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기했던 공정성 문제제기도 언론의 정부기관 정보원 편중에서 시작된 것이다. 재난보도 선행 연구들이 제기한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저널리즘의 본질적 영역인 공정성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도의 공정성과 같이 언론의 규범적 역할을 논할 때 재난보도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재난보도 준칙 이행이다. 한국기자협회(2003)의 보도준칙이 존재하지만 방송에 비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어 신문사의 경우에도 방송사와 같이 재난보도 준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난보도는 위기관리 입장에서 다루어야 하고,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대 기능을 수행하는데 보도 초점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이다(백선기·이옥기, 2012). 한국기자협회(2014)는 세월호 참사보도에서 오보와 선정적 보도로 인한 비판이 제기되자 세월호 참사보도준칙을 발표했다. 2014년 9월 발표된 보도준칙에는,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는 공식 발표를 따르되 정확성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을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등이 명시되어 있다. 언론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재난보도 준칙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월호 참사 재난보도 초기에 재난보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보도 전 시기에 걸쳐 보도 준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은 재난보도 저널리즘을 평가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세월호 참사와 언론보도 연구

2014년 4월 22일 단원고 생존자 학부모들은 대국민 호소문을 띄웠다. 지금 언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속보경쟁에 매달리며 오보를 내고 살아남은 이들에 대한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아이들에게 상

처를 주고 있다는 문제를 고발하고, 진도의 학부모들은 언론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서 살아남은 이들에 대한 취재경쟁을 멈춰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이진로, 2014). 피해자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에는 우리 언론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런 세월호 참사보도의 행태에 대해 방문신(2014)은 참사 자체의 특징과 보도를 접한 수용자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정리했다. 먼저 다른 재난과 다르게 구조될 수 있었던 승객들이 총체적 부실대응으로 희생되었고 그 희생자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이 수용자들의 분노를 배가시켰다는 것이다. 또 매체를 통해 참사를 접한 수용자들이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점인데, 그 원인을 불신으로 해석했고, 불신의 진앙지는 학생전원구조와 사상최대의 구조계획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오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김서중(2014)은 언론의 오보가 오보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희생자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참사 당일 오후 해경과 해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입으로 구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심지어 세월호 구조 승객 인터뷰 내용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이 구경만 하고 있다는 내용을 빼버렸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가 해경의 미온적인 구조 작업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임연희(2014)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보도 분석을 통해 보도 행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속도경쟁에 매달려 사고원인과 문제점, 대안을 찾는 노력이 미흡했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유관기관의 입만 쳐다보는 보도를 하면서 언론의 기본 역할과 저널리즘의 의무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진로(2014)는 추측성, 정파적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 원인보도에서 선박 침몰과 관련해서 항해와 선박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해가 미흡한 기사들이 생산됐고, 인터뷰 관련해서 생존자,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심리적 불편과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보수와 진보의 양방향의 한 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지향함으로써 객관적인 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세월호 보도에만 국한된 일회적 현상이 아니라 재난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언론보도의 관행적 태도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은 재난 직후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속도경쟁과 한건주의(김동규, 2003), 재난 직후 소나기성 보도(이경미·최낙진, 2008), 외국과 비교해서 국내 보도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창현, 1995). 그러나 이러한 재난보도 태도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보도 태도가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는 찾기 힘들다. 재난보도 태도에 대한 기술적 비판을 넘어서 언론의 기본 역할과 저널리즘의 의무와 관련한 분석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서 재난보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 연구문제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일간지들의 재난보도 특성을 프레임

분석으로 알아보고, 정보원 활용을 통해 보도의 공정성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고,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으로서 재난보도 준칙이 준수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일간지에서 보도되었던 세월호 참사의 보도량과 기사 유형을 분석해 재난보도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세월호 재난 보도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뉴스는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구성된 현실인 프레임으로 존재한다. 프레임은 언론이 이슈를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틀이다. 세월호 프레임 분석을 통해 언론이 세월호 참사를 어떤 틀로 조명했는지를 밝히고자했다. 그리고 시간의 추이에 따라 프레임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변화가 있다면 그 양상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프레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2: 세월호 재난 보도에서 시기별로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으며 언론사 간의 특징과 차이는 무엇인가?

재난보도의 선행 연구 결과 정보원 활용에 있어 공식 정보원 편중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원 활용은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되는데, 세월호 재난보도에서 정보원 활용을 통해 보도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쟁점을 프레임하는 방편으로 정보원이 이용되기도 하는데(김경희·노기영, 2011), 이 연구에서도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프레임에 따라 정보원 활용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3: 세월호 재난 보도에서 정보원 이용과 공정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재난보도의 선정성, 정확성, 재난의 원인과 진단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세월호 참사 보도 초기 언론사의 오보와 선정적 보도 태도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있었고, 언론 내부의 반성도 강하게 제기되면서 언론 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난보도준칙이 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의 자발적 문제제기로 제정된 재난보도 준칙이 세월호 보도에서 어떻게 준수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준칙 위반이 프레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했다.

연구문제 4: 세월호 재난 보도에서 보도 준칙은 얼마나 지켜졌는가?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방법

한국언론재단(2007)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수계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은 진보계열의 신문으로 정리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ABC협회가 발표한 2013년 발행부수에서 보수적, 진보적 입장에서 최대 발행부수를 기록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다. 분석기간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세월호 참사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10월 6일까지 총 174일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KINDS)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두 신문사의 기사 수집에 공통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를 이용해 ‘세월호’를 검색어로 기사를 수집했다.

일차적으로 수집된 4,122건(조선일보 1,750건, 한겨레신문 2,372건) 기사 중에서 (1) 검색어인 세월호가 포함되어 있지만 서울지하철 사고,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사고와 같이 안전사고 관련해서 세월호가 언급된 경우, (2)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지방선거 결과 등과 관련해서 세월호가 언급된 경우, (3) 유병언 수사와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의혹과 관련 없는 유병언 개인 신상에 대한 기사, (4)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쟁점에서 벗어난 정치 공방 기사 등은 제외하고 전체 1,660건(조선일보 698건, 한겨레신문 962건)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기간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2014년 10월 6일까지이다. 분석 종료기간을 11월 18일 범정부대책본부 해체까지가 아닌 10월 6일 수사결과 발표까지로 분석 기간을 정한 것은 실질적인 원인과 책임규명이 일단락된 시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74일의 분석기간은 세 시기로 구분했다. (1) 첫 번째 시기는 ‘참사 발생·구조기’로 4월 16일부터 5월 18일인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까지로 참사 발생과 희생자 수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2) 두 번째 시기는 ‘원인·책임 규명기’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던 5월 19일부터 검찰의 해운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8월 6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에게 초등대응의 실패 책임을 묻고, 세월호 선사의 비리와 이를 둘러싼 유착관계 규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의 종료 시점을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온 7월 21일이 아닌 8월 6일 해운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기준으로 한 것은, 7월 21일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다음 날인 7월 22일 유병언 사망이 확인되는 등 원인과 책임 규명의 중요한 사건이 포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8월 7일부터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10월 6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 여당, 야당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세월

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과 진실을 규명하고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던 시기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 번째 시기를 ‘사후 대책기’로 명명했다.

2. 분석유목

세월호 참사 보도 내용 분석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유목을 근거로 분석유목을 재구성했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유목은 보도특성(기사유형, 보도량), 정보원, 관점, 프레임, 보도준칙 등이다.

1) 보도특성

보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뉴스 기사유형과 보도량을 분석하였다. 뉴스 기사 유형은 다음과 같이 스트레이트, 해설기사, 기획기사, 인터뷰 또는 좌담, 논평, 기타로 분류하였다. (1) 스트레이트는 기자의 의견이나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된 기사, (2) 해설기사는 사건의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제시하는 기사, (3) 기획기사는 심층 보도할 사안에 대해 기자가 기획한 기사, (4) 논평은 사안의 원인, 배경 해결책을 풀이하고 필자나 신문사의 의견이나 주장이 담긴 기사로 칼럼과 사실, 그리고 (5) 스트레이트, 해설, 기획, 논평, 기타는 이외의 기사로 분류하였다(조용철 외, 2000; 임영호, 2005; 김영욱 외, 2006).

2) 정보원

정보원은 분류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적 정보원(human source)과 자료 정보원(records and materials)으로 크게 분류되고(이건호·정원규, 2008; 한국언론재단, 2007), 정보원은 소속 조직에 따라 등은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일반인, 외국 등의 큰 항목으로 분류된다(임영호·이현주, 2001).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적용한 인적 정보원 뿐 아니라 자료 정보를 포함하였고, 인적 정보원의 경우 소속 기관별로 구분했다. 자료 정보원은 자료 인용으로 분류했고 인적 정보원으로서 정부기관은 세월호 참사의 특성을 고려해 범정부대책본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지자체, 수사본부(검경수사본부, 검찰, 경찰) 등으로 세분화했다. 비정부기관은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국외정부 및 언론 등으로 나누었다. 특히 재난보도가 단순히 생산자 대 수용자로 구분되는 일반인 뿐 아니라 재난 정보 제공자이면서 구조, 구호, 봉사, 보상, 안부 등의 정보 소비자인 피해자를 고려해야한다는 관점에서(한국언론연구원, 1996) 일반인을 세분화해, 일반시민, 세월호 탑승객으로 구조된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세월호 사건으로 영향 받은 진도, 안산 주민과 단원고 학생인 직접 영향 공중 등으로 분류했다.

3) 관점

관점은 정보원에 관계없이 주요 견해가 단일한지 아닌지를 의미한다. 복합적 관점은 하나의 견해가 기사의 2/3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단일 관점은 하나의 견해가 기사의 2/3이상을 구성하면서 다른 견해가 일시적으로 언급된 경우이다(이건호·정완규, 2009).

4) 프레임

프레임은 형식 프레임과 내용 프레임으로 구분했다. 형식 프레임은 Iyengar(1991)가 구분한 주제 중심 프레임, 일화적 프레임, 기타로 나누었다. 주제 중심 프레임은 갈등 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원인 진단 및 대안 제공이 포함된 기사를 가리킨다. 일화적 프레임은 갈등 사안과 관계있는 사건에 대해 단순한 보고나 과정에 대한 기술적 차원의 설명, 실태에 관한 단순한 정보 제공을 하는 기사를 말한다. 한편 내용 프레임은 Valekenburg et al.(1999)이 제시한 연역적 프레임과 귀납적 방법을 통해 도출한 공동체 속죄 프레임을 추가해 재구성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세월호 재난 발생의 (1)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려는 원인·책임규명 프레임, (2) 분노, 공감, 동정심 같은 감정을 유발하는 측면에 집중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일화적 스토리를 강조하는 인간적 관심 프레임, (3) 피해자와 정부, 선박관계자 간의 인식 차이, 재난 대응 방식에 따른 집단 내부 갈등에 초점을 맞춘 갈등 프레임, (4) 세월호 참사 쟁점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도덕성 프레임, (5) 세월호 참사에 대해 현실적인 이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제적 프레임, (6) 해결중심, 사후대책, 보상을 조망하는 결과 사후대책 프레임, (7)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애도하고 재난 취약성을 성찰하는 공동체 속죄 프레임, (8) 기타 프레임으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선장을 주제로 하는 기사라 할지자로 선장을 해상 뺑소니 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기사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측면이 아니라 반인륜적 선장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해 ‘인간적 관심’ 프레임으로 코딩하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다룬 보도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안전사회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려는 관점을 가진 기사는 사후대책 프레임으로 코딩되었고, 기사 내용상 유가족과 정치권의 대립을 강조하는 기사는 ‘갈등’ 프레임으로 코딩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정보화에 대응한 기능적 교육에만 치중해 왔다. 이제는 기본 질서 지키기와 안전 문제에 대한 성찰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조선일보, 2014. 4. 23).’와 같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기업의 비리와 민관유착 그리고 재난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확대된 참사라고 인식하고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 보도를 공동체 속죄 프레임으로 코딩하였다.

5) 보도준칙

보도 준칙의 준수는 보도 기사 보도 사진을 통합해 한국기자협회(2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일반준칙과 피해자 인권보호로 크게 분류하고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유목화했다. 일반준칙에는 (1) 공식발표에 대한 진위성 검증 준칙인 공적정보사용, (2)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는 선정적 보도 지양, (3) 선정적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자제하는 감정적 표현 자제를 유목화했고, 피해자 인권보호 분류에는 (1) 취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과 희망사항을 존중하는 피해자 보호, (2)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공개 금지, (3) 피해자와 가족의 인터뷰를 강요하지 않는 피해자 인터뷰 강요 지양과 비밀촬영 금지, (4) 불필요한 불안감 조장을 금하는 과거 자료 사용 자제 등으로 유목화했다.

3. 분석방법 및 분석 절차

수집된 기사 분석을 위해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4명이 코딩에 참여하였다. 코더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과 사전 테스트를 실시했고 코딩 과정에서 불일치를 보이는 기사의 경우에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 유목을 결정했다. 코더 간 신뢰도는 전체 기사의 약 10%인 170여 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홀스티(Holsti) 신뢰도 계수를 통해 검증했다. 분석 결과 기사 유형은 0.89, 정보원 0.94, 관점 0.88, 형식 프레임 0.88, 내용 프레임 0.86, 보도준칙 0.90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0.90으로 파악되었다. 코딩이 완료된 데이터 분석에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세월호 재난보도의 특성

세월호 재난보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사 유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신문사의 이념과 논조가 반영되는 논평이 전체 기사의 7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이트가 58.1%, 논평이 20.5%, 해설 기사가 10.3%, 기획기사가 8.2% 순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기사 유형에서 논평 기사의 분량이 해설기사와 기획기사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는 것은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 신문사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사설이나 칼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사 간의 기사 유형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57.207$, $df=4$, $p<.001$). 세월호 재난 보도에 있어서 조선일보는 객관적 사실 전달에 무게를 싣고, 한겨레신문은 사실과 컬럼을 통해 자사의 정치적 성향과 논조를 드러내는 특색을 보였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은 조선일보(67.9%)가 한

겨레신문(51.0%)보다 높은 반면, 논평의 비율은 한겨레신문(25.6%)이 조선일보(1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별 기사 유형의 차이도 세 시기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책임 규명기($\chi^2=30.089$, $df=4$, $p<.001$)에 주목할 만한 것은 해설 기사와 스트레이트 기사 비율 변화이다. 이전 시기에 비해 해설기사는 조선일보가 12.4%에서 4.3%로, 한겨레신문은 14.1%에서 5.2%로 감소한 반면 스트레이트 기사는 조선일보가 61.7%에서 77.4%로, 한겨레신문이 47.1%에서 55.2%로 늘어났다. 사후대책기($\chi^2=0.041$, $df=1$, $p<.001$)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일보에서 기획기사가 한 건도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한겨레신문은 전체 기사에서 18.8%를 차지해 다른 시기보다 전체 기사에서 기획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조선일보와 대조를 보였다.

<표1> 언론사 간, 시기별 기사 유형

	참사 발생구조기			원인·책임 규명기			사후대책기		
	조선일보	한겨레	합계	조선일보	한겨레	합계	조선일보	한겨레	합계
스트레이트	263 61.7%	251 47.1%	514 53.6%	161 77.4%	190 55.2%	351 63.6%	49 77.8%	50 58.8%	99 66.9%
해설	53 12.4%	75 14.1%	128 13.3%	9 4.3%	18 5.2%	27 4.9%	10 15.9%	6 7.1%	16 10.8%
기획	30 7.0%	45 8.4%	75 7.8%	11 5.3%	34 8.2%	45 8.2%	0	16 18.8%	16 10.8%
논평	64 15.0%	144 27.0%	208 21.7%	26 12.5%	90 26.2%	116 21.0%	4 6.3%	12 14.1%	16 10.8%
기타	16 3.8%	18 3.4%	34 3.5%	1 0.5%	12 3.5%	13 2.4%	0	1 1.2%	1 0.7%
합계	426 100%	533 100%	959 100%	208 100%	344 100%	552 100%	63 100%	85 100%	148 100%
	$\chi^2=26.338$, $df=4$, $p<.001$			$\chi^2=30.089$, $df=4$, $p<.001$			$\chi^2=0.041$, $df=1$, $p<.001$		

2. 세월호 참사의 보도 프레임

세월호 참사를 언론이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다. 형식 프레임 분석은 Iyengar(1991)가 제시한 일화적, 주제적 프레임이 각 언론사의 기사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파악하였고, 내용 프레임 분석은 Semetko & Valkenburg(2000)가 제시한 갈등, 도덕성, 책임귀인, 경제,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결과사후대책 프레임과 공동체속죄 프레임을 추가해 분석했다. 각 신문사 보도에서 쓰여진 형식과 내용 프레임을 분석하고, 신문사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프레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1) 형식 프레임

분석결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일화중심 프레임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언론사 간의 형식 프레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chi^2=11.634$, $df=2$ $p<.01$). 조선일보의 경우 일화중심 프레임이 84%, 주제 중심 프레임이 15%를 차지했고, 한겨레신문은 각각 77.9%와 21.5%로 나타나 조선일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제 중심 프레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따라서는 ‘참사발생구조기’와 ‘원인책임규명기’에 언론사 간 프레임의 차이가 분석되었다. ‘참사발생구조기’($\chi^2=8.313$, $df=2$ $p<.05$)에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일화중심 프레임과 주제중심 프레임이 78.7%, 19.9%와 71.7%, 27.6%로 나타나 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보다 일화중심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책임규명기’($\chi^2=8.591$, $df=2$ $p<.05$)에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에서 일화중심 프레임이 10% 이상씩 증가해, 92.3%와 83.7%로 분석되었고 여전히 조선일보에서 일화적 프레임이 많이 쓰인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사후대책기’에는 한겨레신문도 일화중심 프레임이 92.9%로 증가해 조선일보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보도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에서 일화적 프레임의 기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시기별 언론사 간 형식 프레임 차이

시기 형식 매체 프레임	참사 발생구조기			원인책임 규명기			사후대책기		
	조선 일보	한겨레	합계	조선 일보	한겨레	합계	조선 일보	한겨레	합계
주제중심	85 19.9%	147 27.6%	232 24.2%	15 7.2%	54 15.7%	69 12.5%	5 7.9%	6 7.1%	11 7.4%
일화중심	336 78.7%	382 71.7%	718 74.8%	192 92.3%	288 83.7%	480 87.0%	58 92.1%	79 92.9%	137 92.6%
기타	6 1.4%	4 0.8%	10 1.0%	1 0.5%	2 0.2%	3 0.5%	-	-	-
합계	427 100%	533 100%	960 100%	208 100%	344 100%	552 100%	63 100%	85 100%	148 100%
	$\chi^2=8.313$, $df=2$, $p<.05$			$\chi^2=8.591$, $df=2$, $p<.05$			$\chi^2=0.041$, $df=1$, ns		

2) 내용 프레임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의 내용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원인·책임규명(43.3%), 인간적 관심(20.7%), 갈등(10.5%), 결과·사후대책(9.9%) 프레임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별 내용 프레임의 차이가 유의미($\chi^2=43.739$, $df=7$, $p<.001$)하게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 한겨레신문보다 갈등프레임, 경제적 프레임, 결과사후대책프레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한겨레신문은 원인책임규명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공동체 속죄 프레임의 비율이 조선일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참사보도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유가족의 갈등을 조명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와 유병언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매듭지으

려는 관점의 프레임이 한겨레신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세월호 원인책임규명에 집중하였고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표명했다.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비리와 관피아 세력 그리고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참사로 규정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공동체의 성찰을 촉구했다.

시기에 따른 언론사 간의 내용 프레임 차이는 ‘참사발생구조기’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원인책임규명기’($\chi^2=39.256$, $df=7$, $p<.001$)와 ‘사후대책기’($\chi^2=27.996$, $df=4$, $p<.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책임규명기’에는 조선일보가 갈등, 경제적, 결과사후대책 프레임이 한겨레신문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한겨레신문은 원인책임규명, 도덕성, 공동체속죄 프레임이 조선일보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 시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사후대책기’는 두 언론사 모두 도덕성과 공동체속죄 프레임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겨레신문은 원인책임규명(54.1%), 인간적관심(21%) 프레임의 비율이 조선일보보다 높은 반면, 조선일보는 갈등(31.7%), 결과사후대책(30.2%) 프레임이 한겨레신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통령담화 이전까지는 내용 프레임에서 언론사 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통령 담화 이후인 ‘원인책임규명기’부터 조선일보는 한겨레보다 갈등, 경제, 결과사후대책 프레임이 높게 나타났고,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보다 원인책임규명, 도덕성, 공동체 속죄 프레임이 많아지는 등 정치적 성향에 따른 프레임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3〉 시기별 언론사 간 내용 프레임 차이

시기 매체 프레임	참사 발생구조기			원인책임 규명기			사후대책기		
	조선 일보	한겨레	전체	조선 일보	한겨레	전체	조선 일보	한겨레	전체
원인, 책임규명	183 43.0%	257 48.2%	440 45.9%	63 30.3%	148 43.0%	211 38.2%	22 34.9%	46 54.1%	68 45.9%
인간적 관심	86 20.2%	96 18.0%	182 19.0%	59 28.4%	84 24.4%	143 25.9%	1 1.6%	18 21.2%	19 12.8%
갈등	37 8.7%	43 8.1%	80 8.3%	27 13.0%	34 9.9%	61 11.1%	20 31.7%	13 15.3%	33 22.3%
도덕성	6 1.4%	11 2.1%	17 1.8%	3 1.4%	20 5.8%	23 4.2%	0 0%	0 0%	0 0%
경제적	10 2.3%	6 1.1%	16 1.7%	16 7.7%	7 2.0%	23 4.2%	1 1.6%	0 0.0%	1 0.7%
결과, 사후대책	46 10.8%	46 8.6%	92 9.6%	28 13.5%	18 5.2%	46 8.3%	19 30.2%	8 9.4%	27 18.2%
공동체 속죄	24 5.6%	38 7.1%	62 6.5%	2 1.0%	16 4.7%	18 3.3%	0 0.0%	0 0.0%	0 0.0%
기타	34 8.0%	36 6.8%	70 7.3%	10 4.8%	17 4.9%	27 4.9%	0 0.0%	0 0.0%	0 0.0%
합계	426 100%	533 100%	959 100%	208 100%	344 100%	552 100%	63 100%	85 100%	148 100%
$\chi^2=7.286$, $df=7$, n.s			$\chi^2=39.256$, $df=7$, $p<.001$			$\chi^2=27.996$, $df=4$, $p<.001$			

3. 세월호 재난보도 정보원 활용과 공정성

1) 정보원 이용

뉴스는 정보원이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Fishman(1980)과 뉴스는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엇이 발생했다고 한 것이라고 한 Sigal(1986)의 주장처럼 뉴스에서 정보원의 역할은 중요하며 그 중요성은 보도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까지 작용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보도는 재난상황에 대한 공식 집계와 수사결과 등 정부의 공식적 발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이유로 체제 옹호적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재난보도에서 공식 정보원 의존의 불가피성을 극복하고 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원 활용이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보도에서 정보원 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기관(29.4%), 유가족(15.06%), 국회와 정당(11.41%), 전문가(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기관($\chi^2=4.029$, $df=1$, $p<.05$), 시민단체($\chi^2=6.416$, $df=1$, $p<.05$), 유가족($\chi^2=6.403$, $df=1$, $p<.05$)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언론사 간의 유의미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선일보는 정부기관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한겨레신문보다 많았고, 한겨레신문은 시민단체와 유가족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조선일보보다 높았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참사발생구조기’에는 두 언론사간 정보원 이용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후 시기에는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문제 2에서 시기별 언론사간 프레임 차이와 유사한 결과로 대통령 담화 이후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의 차이가 유의미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인책임규명기’에 조선일보는 한겨레신문보다 정부기관을 정보원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유의미했고($\chi^2=13.756$ $df=1$, $p<.001$), 한겨레는 시민단체($\chi^2=11.590$, $df=1$, $p<.01$)와 유가족($\chi^2=3.977$, $df=1$, $p<.05$)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선일보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사후대책기’에는 국회($\chi^2=16.232$, $df=1$, $p<.001$)를 정보원으로 취하는데 있어서도 두 언론사 간의 차이가 뚜렷했는데, 조선일보가 전체 기사 중 67.7%에서 국회를 정보원으로 등장시킨 반면, 한겨레는 34.1%의 기사에서만 국회를 활용하였다. 이 시기 유가족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것에도 유의미한($\chi^2=12.738$, $df=1$, $p<.001$) 차이를 보였는데, 한겨레는 52.9%, 조선일보는 23.8%의 기사에서 유가족으로 정보원으로 등장시켰다. 전 시기에 걸쳐 조선일보는 공식 정보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언론사에 따라 정보원 활용에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프레임에 따라 정보원 활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형식 프레임에서는 국회($\chi^2=19.251$, $df=2$, $p<.001$), 시민($\chi^2=17.948$ $df=2$, $p<.001$), 유가족($\chi^2=33.799$, $df=2$, $p<.001$), 전문가($\chi^2=6.2478$ $df=2$, $p<.05$), 자료인용($\chi^2=29.339$ $df=2$, $p<.001$) 등에서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 프레임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시민, 유가족, 전문가는 일화적 프레임에서 정보원으로 활용

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주제적 프레임에서는 일화적 프레임보다 정보원으로 전문가와 자료인용이 빈번하게 이용되었다.

내용 프레임에 따른 정보원 활용 분석 결과 정부기관은 원인책임프레임, 경제프레임, 결과프레임 기사의 각각 38.4%, 48.9%, 36.3%로 다른 정보원보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고, 유가족은 인간적 프레임 기사의 37.4%에서 정보원으로 등장했다. 국회는 갈등 프레임 기사의 32.3%에서 활용되었다. 시민단체(26.7%)는 도덕성 프레임에서, 일반시민(24.3%)은 공동체속죄 프레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세월호 침몰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는 원인책임규명 프레임에서는 정부기관이 주정보원으로 활용되었고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정보원으로 등장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4> 언론사별 정보원 이용 비율

분류	정보원	조선일보	한겨레	합계
공식정보원	정부기관	313 (31.62%)	384 (27.55%)	697(29.24%)
	국회	119 (12.02%)	153 (10.98%)	272(11.41%)
비공식정보원	시민단체	53 (5.35%)	109(7.82%)	162(6.80%)
	일반시민	38(3.84%)	67(4.81%)	105(4.40%)
	피해자	31(3.13%)	37(2.65%)	68(2.85%)
	유가족	130(13.13%)	229(16.43%)	359(15.06%)
	직접영향공중	28(2.83%)	39(2.80%)	67(2.81%)
	전문가	99(10.00%)	128(9.18%)	227(9.52%)
	기업	20(2.02%)	24(1.72%)	44(1.85%)
	가해자	47(4.75%)	48(3.44%)	95(3.98%)
	국외정부언론	15(1.52%)	22(1.58%)	37(1.55%)
	기타	61(6.16%)	76(5.45%)	137(5.75%)
자료정보원	자료인용	25(2.53%)	71(5.09%)	96(4.03%)
무정보원	정보원없음	11(1.11%)	7(0.50%)	18(0.76%)
합계		990 100%	1,394 100%	2,384 100%

2) 보도 공정성

프레임에 따라 정보원 활용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프레임에 따른 보도의 공정성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첫 단계로 공정성 지수를 산출했다. 보도 공정성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PEJ(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에서 보도 심층성을 측정하는 지수 요인이면서, 목은영·이준웅(2014)이 보도 공정성 인식 요인으로 이용한 요인들을 적용했다. PEJ와 목은영·이준웅(2014)의 연구에서는 ‘정보원 다양성’, ‘균형 관점’, ‘이해관계자 견해 반영’ 요인으로 분석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세월호 침몰이 국가 재난 상황으로 세월호 침몰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해관계자 요인’은 제외시켰다. 지수화 과정은 복합 관점인 경우는 정보원의 다양성이 공정성으로 그대로 계산되고 단일 관점인 경우 정보원수에 1/2을 곱한 값을 공정성으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언론사 간의 공정성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프레임에 따라서는 공정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F=14.387$, $df=7$, $p<.001$). 이것은 프레임에 따른 정보원 이용의 차이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사후 검정에서 공동체 속죄/ 도덕성 프레임, 인간적 관심/ 원인책임규명 프레임, 갈등 프레임 그룹이 각각 공정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갈등 프레임에서 복합관점과 정보원 다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공동체 속죄와 도덕성 프레임에서 복합관점과 정보원 다양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간적 관심 프레임과 원인책임규명 프레임은 갈등 프레임의 공정성보다는 낮고 공동체 속죄나 도덕성 프레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보도에서 정보원 활용과 관점 다양성이 개인이나 집단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인간적 관심 프레임과 같은 수준으로 분석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함에 있어서 공정성 수준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드러내는 프레임의 수준과 같았다는 것은 원인과 책임 규명에서 보도 공정성이 엄격히 지켜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세월호 재난보도 보도준칙

1) 재난보도 준칙 위반

세월호 참사 기사에서 보도준칙 준수에서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지 못한 기사가 전체의 17%로 분석됐고, 신상공개에 부주의한 기사는 전체 11.7%로 나타났다. 공적정보 사용이 지켜지지 않은 기사는 0.6%, 선정성 자제를 위반한 지사는 2.2%, 인터뷰이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기사는 2.0%, 과거자료 사용 자제를 위반한 기사는 1.9%로 분석되었다. 언론사들이 재난을 보도함에 있어서 감정적 표현과 신상공개에 있어 부주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사에 따라 재난보도 준칙 위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조항은 감정적 표현($\chi^2=56.112$, $df=2$, $p<.001$)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전체 기사에서 22.9%가 위반한 반면, 조선일보는 8.9%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적 표현 위반은 ‘참사발생구조기’($\chi^2=15.718$, $df=2$, $p<.001$), ‘원인책임규명기’($\chi^2=34.014$, $df=2$, $p<.001$), ‘대책수립기’($\chi^2=10.930$, $df=2$, $p<.001$) 전 시기에 걸쳐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표현 위반은 다른 기사 유형보다 논평기사(63.8%), 기획기사(16%)에서 높게 나타났다. 컬럼과 사설의 필진 그리고 기획보도를 담당하는 저널리스트들의 재난보도준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2) 보도준칙 위반과 프레임

프레임에 따른 재난보도 준칙 위반을 분석한 결과 감정적 표현과 신상공개 항목 위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적 표현 자체($\chi^2=55.477, df=7, p<.001$)를 위반한 292건의 기사 중 원인책임규명 프레임의 기사가 135건으로 47.9%, 인간적관심 프레임이 69건으로 24.5%를 차지했다. 신상공개($\chi^2=360.312, df=7, p<.001$)를 위반한 195건의 기사 중에서 인간적 관심 프레임의 기사가 141건으로 72.3%를 차지했고 다음은 원인책임규명 프레임의 기사가 37건 위반해서 19%를 차지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려는 기사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거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나 피해를 수습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부주의한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이 지적했던 객관적이고 냉정한 보도대신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주관이 개입된 보도가 두드러진다는 재난보도의 문제점이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도 재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5> 프레임별 보도준칙 위반

프레임 보도 준칙	원인 책임규명	인간적 관심	갈등	도덕성	경제적	결과 사후대책	공동체 속죄	기타	합계
감정 표현	위반 (47.9%)	69 (24.5%)	21 (7.4%)	9 (3.2%)	2 (0.2%)	15 (5.3%)	29 (10.3%)	2 (0.7%)	282 (100%)
	준수 (42.5%)	275 (20.0%)	153 (11.1%)	31 (2.2%)	38 (2.8%)	150 (10.9%)	51 (3.7%)	95 (6.9%)	1,378 (100%)
	$\chi^2=55.477, df=7, p<.001$								
신상 공개	위반 (19.0%)	141 (72.3%)	3 (1.5%)	1 (0.5%)	0 (0%)	5 (2.6%)	3 (1.5%)	5 (2.6%)	195 (100%)
	준수 (46.7%)	203 (13.9%)	170 (11.6%)	39 (2.7%)	40 (2.7%)	160 (10.9%)	77 (5.3%)	92 (6.3%)	1464 (100%)
	$\chi^2=360.312, df=7, p<.001$								

V. 결론

이 연구는 세월호 참사의 보도 프레임 분석과 공정성에 관한 연구이다.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프레임과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 공정성, 재난보도준칙과의 관련성을 검증해보았다. 연구 결과 세월호 참사 보도 프레임은 원인 책임규명, 인간적 관심, 갈등, 사후대책 프레임이 빈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체 속죄, 도덕성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언론사별 프레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도덕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인간적 관심을 넘어서 공동체의 성찰 문제로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높았고, 보수적 성향을 갖는 조선일보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갈등, 경제적 손실, 참사 종결과 대책 관점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고 구조와 대책의 미진함에

문제를 제기한 반면, 조선일보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경제적 손실, 사건의 종결 등 ‘사건’ 보도의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도했다고 볼 수 있다. 보도 프레임이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수준에서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인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은 세월호 참사의 현실 구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보도 유형에 있어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스트레이트가 58%를 차지했고 칼럼과 사설 등의 논평이 20%에 달한 반면 기획기사는 8.2%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던진 충격과 피해자 고통의 총량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의 심층적 접근과 무게감있는 사후 대책 보도가 부족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언론의 재난보도 시스템 부재에 기인하는 것인지 혹은 언론사의 보도 관행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정보원은 정부기관, 유가족, 국회와 정당, 전문가 순으로 빈번하게 등장했다. 프레임에 따른 정보원 활용도 일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 책임규명, 경제, 결과 사후 대책 프레임에서는 정부를 주정보원으로 기사를 구성했고, 갈등 프레임에서는 국회, 인간적 프레임에서는 유가족, 도덕성과 공동체 속죄 프레임에서는 시민단체가 주정보원으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해경, 안전행정부, 해수부 등 정부 조직의 대응 미숙과 해운사와 퇴직관료의 유착 비리가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정부기관이 주정보원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측면에서 정보원의 다양성이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원 다양성과 관점 다양성을 지수화해서 분석한 공정성 결과와 맥을 같이 했는데, 원인책임규명 프레임의 공정성 수준이 개인이나 집단의 일화적 스토리를 강조하는 인간적 관심 프레임의 정보원과 관점 다양성 수준과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언론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서 정보원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뒷받침할 뿐 아니라 관점의 다양성도 미흡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난보도준칙 준수에서는 냉철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감정적 보도 자제의 경우 전체 기사 중 17%가 이를 지켜내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의 경우는 전체기사 중 12%가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감정적 표현을 위반한 기사 전체 중 인간적 관심 프레임이 24.5%, 원인책임규명 프레임이 47.9%를 차지한다는 결과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규명에 있어서 우리나라 언론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보도 태도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을 사고로 규정하는 관점과 이를 참사로 규정하는 관점이 대립해오고 있다. 이런 관점의 대립은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프레임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수 언론은 진보 언론에 비해 세월호 침몰을 사고로 규정하고 이를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관점의 보도가 많았고, 진보 언론은 보수 언론에 비해 세월호 침몰을 참사로 규정하고 공동체 성찰을 통해 안전사회로 나아가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언론은 이런 대립되는 관점들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유보된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

과 관계없이 세월호 참사보도에서 정보원 편중을 보였고 다양한 관점 제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언론이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공론장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보도의 공론장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도 연결되는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이 엄격히 이행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언론이 재난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보도준칙을 위반하는 것은 재난보도의 광범위한 역할 즉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중들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등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 없이 사건위주로 접근하는 미시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언론인의 직업윤리의식을 비롯한 재난보도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보도 프레임의 차이와 프레임에 따라 정보원 활용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언론이 자사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 프레임을 선택해 의제화 함으로써 세월호 참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그런 가능성의 확인은 세월호 참사 프레임이 뉴스 이용자들의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진숙. 1996. 재난보도의 현실구성방식 연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관한 TV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연구. 5(1): 117-146.
- 고영신. 2007. 정권의 성격변화와 언론보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보도의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1): 156-196.
- 김경희, 노기영. 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1): 361-388.
- 김동규. 2002. 한국 언론의 위기보도, 그 실상과 과제: 재난, 전쟁, 테러 및 갈등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 139-156.
- 김정아, 채백. 2008. 언론의 정치 성향과 프레임: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1: 232-268.
- 박재영. 2006. 뉴스 평가 지수 개발을 위한 신문1면 머리기사 분석. 한국의 뉴스 미디어 2006.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방문신. 2014. 세월호 재난보도가 남긴 과제와 교훈. 관훈저널. 131: 13-26.
- 백선거, 이욱기. 2012. 보도준칙을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스피치와커뮤니케이션. 18: 7-54.
- 백 U. 지음. 홍성대 옮김.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위하여. 서울: 새물결.

- 송인덕, 2014. 언론사의 정파성 인식과 수용자의 정치성향에 따른 편향적 매체지각: 신문사설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0(3): 222-257.
- 송해룡, 이윤경. 2013. 국내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의 위험 보도에 관한 비교 연구: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8: 97-114.
- 심재철. 1999. 경제보도의 이상과 현실: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논쟁. 서울: 삼성언론재단.
- 심훈. 2005. 20세기 하반기의 미 신문 1면 보도에 대한 다양성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30: 1-27.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2): 284-315.
- 양정혜. 2008. 환경재난 뉴스의 프레임링; 국내 주요 일간지의 허베이 스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 보도 사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9: 81-121.
- 유승관, 강경수. 2011. 세계 뉴스 통신사의 재난·재해 뉴스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6: 140-169.
- 이건호, 정완규. 2008. 한국과 미국 신문의 1면 기사 비교: 취재 영역 및 보도 형태별 취재원 출현에 따른 심층성 분석. 한국언론학보. 52(4) : 25-49.
- 이강수. 2011. 뉴스론: 미디어 사회학적 연구. 파주: 나남출판사.
- 이경미, 최낙진. 2008.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 보도 연구. 언론정보연구. 45(1): 97-129.
- 이동근. 2004.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다양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언론학보. 48(4): 218-242.
- 이민규, 이예리. 2012. 국내 신문의 가축 전염병 위험 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제역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2): 378-414.
- 이준용. 1997. 언론의 틀 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 사회. 17(9): 100-135.
- 이준용. 2009. 뉴스 틀 짓기 연구의 두개의 별. 커뮤니케이션 이론. 5(1): 123-166.
- 이재경. 2003. 한국과 미국 신문의 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한국저널리즘 관행연구. 서울: 나남출판.
- 이종혁. 2015. 언론 보도에 대한 편향적 인식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1): 7-36.
- 이진로. 2014. 세월호 침몰사건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통학회학술대회. 2014(1): 187-199.
- 이창현. 1995. 재난에 대한 한일간 방송 보도 비교연구. 서울: 한국방송개발원.
- 이행원. 1999. 취재보도의 실제, 서울: 나남출판사.
- 임연희. 2014.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25(4): 179-201.
- 임영호. 2005. 신문원론. 서울: 한나래.
- 임영호, 이현주. 2001. 신문기사에 나타난 정보원의 권력 분포: 1949-1999년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 분석. 언론과학연구. 1(1): 300-330.
- 정재철. 2004. 한국신문의 유전자 연구 프레임 비교 분석: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5: 135-163

- 최현주. 2010.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6개 종합일간지의 3개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 성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3): 399-427.
- 한동섭, 유승현. 2008. 언론 보도에 나타난 익명 정보원에 관한 연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4): 702-739.
- 한국기자협회. 2003. 보도준칙.
- 한국기자협회. 2014. 재난보도준칙.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5. 사회위기와 TV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한국언론연구원. 1996. 한국언론의 재난보도 준칙과 보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언론재단. 2007. 한·미 신문의 기사 형식과 내용.
- Ball-Rokeach, J. and L. DeFleur.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1): 3-21.
- Ben-Porath, E. and L. Shaker. 2010. News Images, Race, and Attribution in the Wake of Hurricane Katrina. *Journal of Communication*. 60(3): 466-490.
- Beaudoin, E. 2007. News, Social Capital and Health in the Context of Katrina. *Journal of Health Care for the Poor and Underserved*. 18(2): 418-430.
- Brown, J., C. Bybee, S. Wearden, and D. Straughan. 1987. Invisible Power: Newspaper News Sources and the Limits of Diversity. *Journalism Quarterly*. 64(1): 45-54.
- Brüggemann, M. 2014. Between Frame Setting and Frame Sending: How Journalists Contribute to News Frames. *Communication Theory*. 24(1): 61-82.
- Carragee, M. and W. Roefs. 2004. The Neglect of Power in Recent Framing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 54(2): 214-233.
- Coleman, C. 1995. Science, Technology and Risk Coverage of Community Conflict. *Media, Culture & Society*. 17(1): 65-97.
- Coombs, T. 2007.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2n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Durfee, L. 2006. Social Change and Status Quo: Framing Effects on Risk Perception. *Science Communication*. 27(4): 459-495.
- Edelman, M. 1993. Contestable Categories and Public Opinion. *Political Communication*. 10(3): 231-242.
- Entman, R. 1985. Newspaper Competition and First Amendment Ideals: Does Monopoly Matter?. *Journal of Communication*. 35(3): 147-165.
- Entman, R.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 Entman, R.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Entman, R. and A. Rojecki. Freezing Out the Public: Elite and Media Framing of the U.S. Anti-nuclear Movement. *Political Communication*. 10(2): 155-173.
- Fishman, M. 1980.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Ganson, W. and A. Modigliani.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Gans, H. 1979. *Deciding What's news*. New York: Pantheon Book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annah, G. and P. Cafferty. 2006. Attribute and Responsibility Framing Effects in Television News Coverage of Pover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2): 2993 - 3014.
- Hirschburg, L., A. Dillman, and S. Ball-Rokeach. 1986. Media Systems Dependency Theory: Responses to the Eruption of Mt. St. Helens. S. Ball-Rokeach and G. Cantor. (eds.). *Media, Audience and Social Structure*. Newbury Park, CA: Sage.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vach, B. and T. Resenstiel.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 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Crown.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Kreps, G. 1989. *Social Structure and Disaster*.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 Matthes, J. 2009. What's In a Frame? A Content Analysis of Media Framing Studies in the World's Leading Communication Journals, 1990 - 2005.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6(2): 349-367.
- Molotch. H. 1970. Oil in Santa Barbara and Power in America. *Sociological Inquiry*. 40(1): 131-144.
- Molotch, H. and M. Lester. 1975. Accidental News: The Great Oil Spill as Local Occurrence and National Ev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2); 235-260.
- McCulagh, C. 2002. *Media Power: A Sociological Introduction*. New York: Palgrave.
- McLeod, D. and B. Detenber. 1999. Framing Effects of Television News Coverage of Social Protest. *Journal of Communication*. 49(3): 3-23.
- McLeod, M. and K. Hertog. 1998. Social Control and the Mass Media's Role in the Regulation of Protest Groups: The Communicative Acts Perspective. D. Demers and K. Viswanath. (eds.). *Mass Media, Social Control and Social Change*. Ames: Iowa State University

- Press.
- Norris, F., S. Stevens, B. Pfefferbaum, K. Wyche, and R. Pfefferbaum. 2008. Commun Resilience as a Metaphor, Theory, Set of Capacities, and Strategy for Disaster Readi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1-2): 127-150.
- Rogers, E. M. 2003. Diffusion of News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A. Noll. (eds.). *Crisis Communications: Lessons from September 11*.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Quarantelli, E. and D. Wenger. 1991. A Cross-societal Comparison of Disaster News: Reporting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L. Wilkins and P. Patterson. (eds.). *Risky Business: Communicating Issues of Science, Risk, and Public Policy*. New York: Greenwood Press.
- Roshco, B. 1975. *Newsmak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ndman, P. 1988. Telling Reporters about Risk. *Civil Engineering*. 58(8): 36-38.
- Scheufele, D.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 Schudson, M. 2003. *The Sociology of News*. New York: Norton & Company.
- Semetko, H. and P. Valkenburg.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hoemaker, P. and S. Reese.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 on MassMedia Content*. New York: Longman.
- Sigal, L. 1973. *Reports and Officials: The Organization and Politics of Newsmaking*, Lexington, MA: D.C. Heath & Company.
- Sigal, L. 1986. Who?: Sources Make the News. R. K. Manoff an M. Shudson. (eds.). *Reading the News*. New York: Pantheon.
- Smith, C. 1993. News Sources and Power Elites in News Coverage of the Exxon Valdez Oil Spill. *Journalism Quarterly*. 70(2): 393-403.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 Valkenburg, P., H. Semetko, and C. De Vreese.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5): 500-569.
- de Vreese, C. H. 2005. News Framing: Theory and Typology. *Information Design Journal*. 13(1): 51-62.
- Watson, B. 2014. Assessing Ideological, Professional, and Structural Biases in Journalists' Coverage of the 2010 BP Oil Spill.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1(4): 792-810.
- Westerstahl, J.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General Pemises. *Communication Research*. 10(3):

403-424.

Wilkins, L. and P. Patterson. 1987. Risk Analysis and the Construction of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37(3): 80-92.

김영옥: 미플로리다대 매스커뮤니케이션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위기관리의 이해",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현대 사회의 위험, 위기, 갈등에 대한 해석과 대응", "위험 커뮤니케이션",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 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위험 커뮤니케이션, 갈등해소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kimyw@ewha.ac.kr).

안현의: 미국 위스컨신주립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재난과 외상의 심리적 응급처치'가 있으며, 관심분야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기제 및 치료, 심리적 응급처치, 트라우마 기억의 처리과정, 집단트라우마와 인권문제 등이 있다 (ahn12@ewha.ac.kr).

함승경: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hamseungkyung@gmail.com).